

주금(鑄金)

주금은 일본의 전통 주조기술로 녹인 금속을 주형에 부어 실온에서 냉각시켜 형태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금속을 액체상태로 취급하기 때문에 쓰이키(추기) 등 다른 금속 가공기술에 비해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금은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조기술은 야요이 시대 초기(기원전 400년~기원후 200년)에 아시아 대륙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1세기경에는 칼이나 거울, 동탁과 같은 청동기가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광석을 정련하여 금, 은, 구리, 주석, 철 등 다양한 합금을 만드는 야금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융점이 높은 철을 다루는 주철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금속을 주조하는 특수 기술은 금속가공업자들 사이에서 대대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주조기술은 장식품뿐만 아니라 범종, 다관, 밥술 등 일본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 제작에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시카와현에서는 다도에 사용되는 동라에 주조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금은 주형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원하는 작품의 원형을 로스트 왁스 기법으로 만드는 것을 '로가타(납형)'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점토 모형과 석고로 내형과 외형을 만드는 입형 주조(*piece molding*) 기법이 '고메가타(입형)'입니다. 이 외에도 '소가타(총형)'는 위아래로 나뉜 사네가타(거푸집)에 점토와 모래를 섞은 '마네'를 붙여 구워낸 후, 외형 안에 내형을 넣고 그 사이 틈에 액체상태의 금속을 부어 넣습니다.